EU의 IFRS 17 채택 경과와 보험회사 준비 현황

황인창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IFRS 17 채택을 위한 법적승인 자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제적 영향분석을 수행 중임.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EFRAG이 실시한 사례분석에 의하면, 약 20%의 보험회사만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절반이 넘는 보험회사는 영향평가를 시작하거나 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 EFRAG이 수행 중인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유럽보험회사들은 기술적 해석에 대한 합의 도출, TRG 논의 일정, 도입 준비에 필요한 인적자원 등의 측면에서 현재 예정된 IFRS 17 적용일정을 맞추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유사한 기간 동안 수행된 다른 설문조사(Deloitte와 SAS)에 의하면, 유럽보험회사들은 IFRS 17 시행일 준수에 낙관한다고 답변하여 유럽보험회사들의 IFRS 17 도입 준비 상황과 적용의 어려움이 회사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보험회사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국가 간, 산업 간)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IFRS 17 '보험계약'을 제정함

-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국가별,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성과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려웠음
- IASB는 IFRS 17 제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5월 최종기준서를 공표함
- 최종기준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 17을 적용함

28개 EU 국가들은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일반회계) 작성 시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함

- 우리나라와 달리 상장기업의 감독보고,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연결재무보고와 감독보고)에서의 IFRS 의무적용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함
  - 우리나라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경우 IFRS를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해야 함

〈표 1〉 EU국가들의 IFRS 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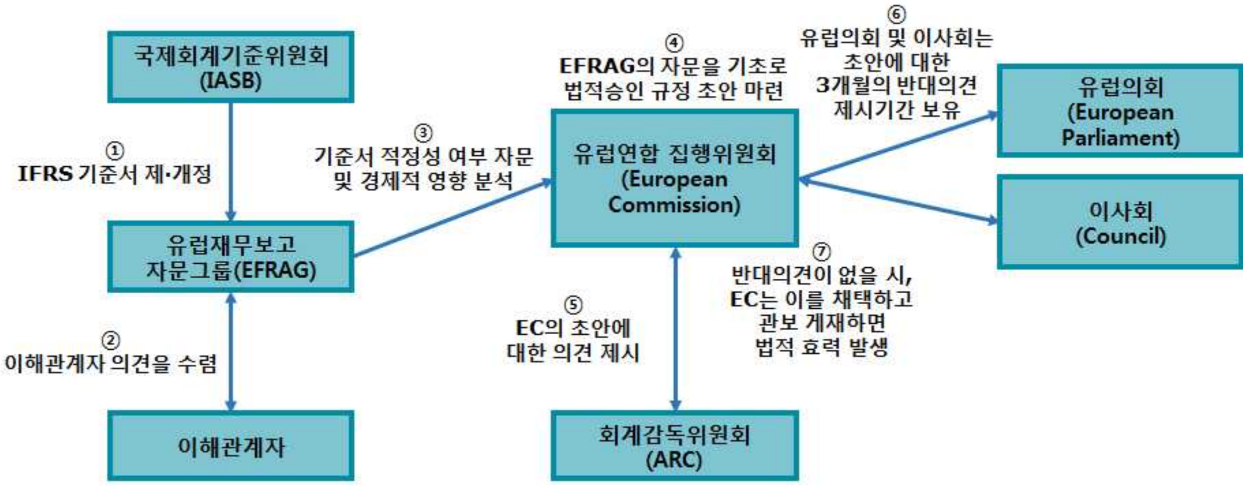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의무적용	선택적용	적용금지
상장 기업	연결재무보고 (일반회계)	100	0	0
	감독보고 (감독회계)	43	32	25
비상장 기업	연결재무보고 (일반회계)	46	54	0
	감독보고 (감독회계)	29	43	28

자료: Insurance Europe(2018. 4. 23), "Webcast IFRS 17 simplified case study"

- EU는 IFRS 적용 시 해당 기준서를 채택하여 법적 유효성을 부여하는 과정(Endorsement Process)을 거침1)
  -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회계이론 및 실행상의 이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며, 이를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을 운영함
  - 또한 채택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IFRS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을 할 수 있고, 실제 수정한 사례도 있음

〈그림 1〉 EU의 IFRS 채택 절차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U의 IFRS 17 채택 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EFRAG의 법적승인 자문서 작성(〈그림 1〉의 ③)을 위한 경제적 영향분석 단계에 있음

1) 우리나라도 IFRS 적용 시 EU와 유사한 절차를 거침(자세한 내용은 조재린·황인창(2016. 10. 17), 「IFRS 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KiRi 리포트』 참조)

- EFRAG은 금년 9월 초에 경제적 영향분석을 마칠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 기준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문서를 발표할 예정임

〈그림 2〉 EU의 IFRS 17 적용 일정

자료: Insurance Europe(2018. 4. 23), "Webcast IFRS 17 simplified case study"

EFRAG은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금년 상반기 보험회사 설문조사를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최근 예비결과(Preliminary Results)를 발표함

- EFRAG은 당초 상세한 사례분석(Detailed case study)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설문응답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간단한 사례분석(Simplified case study)을 위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수행함
  - 상세한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기에 자원이 부족하여 사례분석을 간단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함
- 간단한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보험사업에 대한 IFRS 17의 기대 영향(주로 정성적 문항, 실행비용에 대한 정량적 문항 포함)
  - IFRS 17의 정량적 영향 추정치
- 현재 상세한 사례분석 및 간단한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가 끝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상세한 사례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EU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11개 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가 참여함
  - 간단한 사례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EU 14개국의 49개 보험회사가 참여함

간단한 사례분석의 예비결과 중 보험회사의 준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약 20%의 응답회사는 이미 실행(Implementation) 단계에 진입함
  -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들은 실행을 2017년 11월~2018년 4월에 시작하였으며, 예상 완료시점으로 2019년 말~2021년까지라고 답변함
- 절반이 넘는 응답회사는 영향평가(Impact Analysis)를 시작했거나, 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행을 준비하고 있음
  -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들은 영향평가를 2017년 3월~2018년 5월에 시작하였으며, 예상 완료시점은 2018년 3월~2020년 중이라고 답변함

〈표 2〉 EFRAG의 간단한 사례분석에 대한 예비결과: 보험회사 준비 현황

(단위: 개)

구분	영향평가 진행 중	영향평가 완료 후 실행 준비 중	실행 진행 중	영향평가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합계
벨기에	1	-	1	1	-	3
프랑스	1	1	1	-	-	3
독일	-	-	3	-	-	3
이탈리아	3	1	1	-	-	5
네덜란드	2	2	1	1	-	6
기타 동유럽	2	1	-	-	-	3
기타 서유럽	5	-	1	-	1	7
슬로바니아	5	2	2	-	-	9
영국	2	8	-	-	-	10
합계	21	15	10	2	1	49

주: 기타 동유럽은 체코와 리투아니아를 의미하고, 기타 서유럽은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를 의미함
자료: EFRAG(2018. 7. 25), “IFRS 17 Insurance Contracts Preliminary results of simplified case study”

- 간단한 사례분석의 예비결과 중 IFRS 17의 기대효과를 재무정보의 질,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 자본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응답회사들은 IFRS 4와 비교해볼 때, IFRS 17 적용은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답변함
  - 응답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IFRS 17 적용이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공급자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킨다고 답변했지만, 약 절반의 응답회사들은 IFRS 17 적용이 그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답변함
    -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공급자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이고, 이들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기준서의 복잡성(Complexity) 때문임
  - 약 절반의 응답회사들은 IFRS 17 적용이 보험회사의 자본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EFRAG이 수행 중인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유럽 보험회사들은 IFRS 17 적용일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예정된 일정을 맞추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개진함[2]

  - 기술적 해석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 보험회사와 회계감사인 간 합의(Consensus)를 이루는데 시간이 소요됨
  -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그룹(Transition Resource Group, 이하 ‘TRG’)[3]에서의 논의를 통해 특정

---

2) 이와 더불어 측정, 운영상 복잡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비용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자세한 내용은 CFO Forum(2018. 7. 3), “CFO Forum Presentation to the EFRAG Board: EFRAG testing results” 참조)

이슈에 대한 명확화와 수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TRG는 2018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임
- 계리사, 회계사, IT 전문가 등 IFRS 17을 준비하기 위한 보험업권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하 'CSM')[4] 산출 등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아직 구입할 수 없음
- 회계적 영향 결과가 충분한 정확성을 갖춰야지만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교육도 필요함

■ 반면 EFRAG의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금년 초에 실시한 Deloitte[5]와 SAS[6]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럽보험회사들은 IFRS 17 시행일 준수를 낙관한다고 답변함

- Deloitte는 전 세계 12개국(EU 6개국 포함)의 340개 보험회사의 IFRS 17 도입 준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SAS는 영국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Deloitte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IFRS 17 시행일 준수 가능성에 대해 약 90%의 응답자가 확신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강함
- SA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IFRS 17 시행일 준수 가능성에 대해 약 99%의 응답자가 확신한다고 답변함

■ 위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들이 다르다는 점은 유럽 보험회사들의 IFRS 17 도입 준비 상황과 적용의 어려움이 회사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회사의 규모, 자산 및 상품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IFRS 17 도입의 어려움이 달라짐 KiRi

3) TRG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임
4) CSM은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는데, IFRS 17의 CSM 도입은 기존 기준서인 IFRS 4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임
5) 자세한 내용은 Deloitte(2018), "2021 countdown underway: Insurers prepare for IFRS 17 implementation"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SAS, (2018), "A Transformation in Progress: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IFRS 17" 참조